



★ 작품 핵심 ★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의 시어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적 태도를 강조한 작품.

핵심록

- ① **주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화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태도를 다진다.
- ③ **작품의 특징:**
 - ①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
 - (예)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② 색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예)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
- ④ **중요 소재:** 푸른 하늘/푸른 별(이상과 희망) vs. 저문 들길(부정적 현실)

KEYWORD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 희망, 부정적 현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 시 구조 ★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닌 것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도 푸른 하늘을 지녔다며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2연	화자는 푸른 하늘을 우러르는 삶에 대해 송고함을 느끼고 있다.
3연	화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며 현재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
4연	화자는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삶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5연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푸른 별을 바라보자고 권유한다.
6연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거룩함을 느끼고 있다.

★ 작품의 특징 ★

- ①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 (예)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② 설의법이 나타나 있다. (예) 얼마나 송고한 일이나, 얼마나 기쁜 일이나)
- ③ 청유문이 나타나 있다. (예) 바라보자)
- ④ 색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
- ⑤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저문 들길 vs. 푸른 하늘/푸른 별)

★ 내용 이해하기 ★

- : 긍정적 이미지, vs. △ : 부정적 이미지.
- [] : 특정 어미의 반복(설의법)

「들길에 서서」는 다음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송고, 기쁨,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직유법, 설의법 등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이다. 또한 시의 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며 분석해보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① '푸른 산'은 '화자(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임.
- ② '흰 구름'은 '푸른 하늘'과 동일시되는 대상임.
- ③ 긍정적 대상 (1)
- ④ 직유법.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① 화자의 '희망'과 관련이 있음.
- ② 긍정적 대상 (2)

※ 이미지 연결

- ① 푸른 산 = 나(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 ② 흰 구름 = 푸른 하늘(희망과 이상)

〈1연〉에서 화자는 푸른 하늘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한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이, 화자에게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상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 ① 〈1연〉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의 행동.
- ② 현실 대응 방식.

송고한 일이나

- ① 송고하다: 뜻이 높고 고상하다.(송고한 삶에 대한 인식)
- ② 설의법.

〈2연〉은 〈1연〉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화자는 푸른 하늘을 향해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는 행동에 관심을 두는데, 이를 송고하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송고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는 모습'을 '송고하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파악하도록 하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 '연약한 두 다리'와 '젊은 산맥'을 연결하여 힘들어도 희망과 의지를 드러냄.

화자의 삶의 터전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 ① '부절히 움직인다'에서 동적 이미지 확인.
- ② 부절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 ③ '연약한 두 다리'와 연결하여 의지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음.

〈3연〉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현재 화자의 두 다리는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즉 화자는 연약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둥근 지구'를 밟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

- ① 〈2연〉의 '둥근 지구를 밟는 행동'과 연결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확인.
- ② 〈1연〉의 '푸른 산'과 연결하여 '희망을 지닌 주체'를 확인.
- ③ 설의법.
- ④ 현실 대응 방식.

이나

〈4연〉은 〈3연〉과 같이 연결하여 해석하면 된다. 특히 〈1연〉에서 언급된 '푸른 산'이 〈4연〉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1연과 동일하게 희망을 지닌 주체이자 화자(나)를 상징한다고 보면 된다. 즉, 〈4연〉은 화자가 푸른 산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삶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① '생활'은 화자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관련이 깊음.
- ② '슬퍼도 좋다'는 말은 이 현실이 좋다는 의미가 아님. (인식의 전환 -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

- ① 〈1연〉의 '푸른 산'과 '푸른 하늘', 〈4연〉의 '푸른 산'과 연결.
- ② 긍정적 대상 (3)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① '생활'과 같이 연결. 청유문.
- ② 화자가 겪는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

〈5연〉은 다른 연과 달리 "생활'은 슬퍼도 좋다'는 말과 '저문 들길'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현실과 이에 대비되는 '푸른 별'이 제시된 것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한다. "생활'은 슬퍼도 좋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며, 이는 '푸른 별'로 이어진다. 즉 '저문 들길'과 '푸른 별'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

- ① 거룩하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 ② 〈2연〉의 '송고하다'와 연결되어, 자신이 하는 일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니……

말을 생각하는 끝맺음을 통해 여운 조성.

〈6연〉은 다시 〈5연〉과 연결된다. 〈1연〉과 〈2연〉에서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송고함으로 해석하였고, 〈3연〉과 〈4연〉에서는 지구를 밟고 디디는 행동을 기쁨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연〉과 〈6연〉에서는 푸른 별을 바라는 것을 거룩함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수능특강 9p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학년도 대수능]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남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콜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다)		
1~2연	3~4연	5~6연	1연	2~3연	4~6연
A	B	C	A	B	C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기록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5.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흰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신석정, 「들길에 서서」

수록 009P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④

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⑤ (가)는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에서 암울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뺨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 속에서도 '푸른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는 '눈 덮인 북한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고고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 (나), (다) 모두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둘 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③ (다)는 일상생활이 아닌 고고한 삶의 세계를 보여준다. ④ (가)는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와 같은 직유법과 의인법이 쓰였고, '거미집', '꿈길', '바람'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역시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푸른 산처럼'과 같은 직유법과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둘 다 어조가 일관되어 있다. ③ (나)에서는 '푸른색'의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을 뿐, 특정 색채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자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한다.

⑤ (가)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바람'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인의 실망 의식과 저항 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 [출제 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③ (나)는 삶의 송고함과 삶의 희열, 삶의 목표 확인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응축된다고 할 수 없다. 나란히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출제 의도]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④ 북한산이 그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가볍게 눈을 쓰고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이라도 윈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그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윈산을 뒤덮는 적설'이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얽은 화장'은 눈이 살짝 쌓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③ 겨울과 대비되는 때의 소재를 말하고 있다. ⑤ 산봉우리의 고고함은 긴장을 조금만 늦추어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수능특강 9p 관련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 수능특강 101p 관련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山蔘)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튼튼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
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나)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밭동에도 푸른 짝이 돋았다 때로 늪은
나무도 짝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굵은 등에 푸른 짝이 돌을까 묻
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향시 우리들 삶
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
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 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 처
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월,
풀잎 아래 없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石炭層)
이 깊었다

-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외감을 표출한다.
- ② ㉠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의 화자의 의연함을,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은 화자에게 닥칠 미래의 시련을, ㉡은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고난을 환기한다.
- ④ ㉠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표현한다.
- ⑤ ㉠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소극적 자세를, ㉡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진취적 자세를 보여 준다.

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 화자는 작품 속 대상에 대해 동일시나 투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나름의 대응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는 '푸른 산'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나)의 화자는 '늪은 나무'를 자신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으로 여기고 있군.
- ② (가)의 화자는 '튼튼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푸른 산'을 통해, (나)의 화자는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를 통해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의 화자는 슬픈 '생활'과 '저문 들길'을 통해, (나)의 화자는 '돼지 목 따는 동네'와 '굵은 등'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나의 일과'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지속적 미래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나)의 화자는 '없드려 숨죽'인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확신하며 견뎌내는 인내의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깨닫는 과정과 (나)에서 화자가 '갈라진 밭동'에 '푸른 짝'이 돋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화자가 주어진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이겠군.



☞ 신석정, 「들길에 서서」	수록 009P
☞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수록 101P

06. ③ 07. ② 08. ④

6.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③ (가)에서는 '푸른 산'과 '흰 구름'처럼 '푸른'과 '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푸른 풀', '푸른 싹'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계절의 순환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가)는 '푸른 별을 바라보자'를 통해 청유형 어조만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없었다', '-이었다'처럼 단호한 어조를 활용해 화자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명령형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슬퍼도 좋다'라며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출제 의도]** 작품에 제시된 시어에 대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② (가)의 화자는 ㉠의 젊은 산맥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디디며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에서 푸른 싹이 돋을까 하고 기대를 가졌지만 늘 자신들의 삶은 먼지가 낀 풍경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은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소외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의 젊은 산맥은 화자에게 닥칠 미래의 시련이 아닌 희망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의 먼지 낀 풍경은 화자가 겪은 과거의 고난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젊은 산맥은 화자의 반성적 태도라 볼 수 없다. 다만 ㉡의 먼지 낀 풍경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에서 젊은 산맥으로 삼자는 행위를 통해 적극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의 ㉡에서는 먼지 낀 풍경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8.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④ <보기>에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나름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다. (가)에서는 '푸른 별을 바라보자'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회의적인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에서 '석탄층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었다'라면서 '푸른 산 : 흰 구름 = 나 : 푸른 하늘'로 동일시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도 늙은 나무처럼 푸른 싹이 돋는 젊음을 경험하고 싶으면서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푸른 별을 바라보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면서 부정적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고, (나)에서는 솟아오르고 싶으며 물줄기처럼 찢어지며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면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지향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슬픈 생활'과 '저문 들길', (나)의 '돼지 목 따는 동네'와 '굵은 등'은 화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자신의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게 되고, (나)에서는 푸른 싹이 돋는 갈라진 밀동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01.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작품 핵심 ★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는 작품.(현실에 의해 희생을 강요 받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발)

핵심 속

- ① **주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구자명 씨의 고달픈 현실을 관찰하며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주로 구자명 씨의 삶을 위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③ **작품의 특징:**
 - ①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
 - (예) 부처님처럼, 팬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
 - ②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예) 진달래꽃과 밤꽃 vs. (졸고 있는 구자명 씨)
 - ③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담겨 있다.
- ④ **중요 소재:** 부처님/팬지꽃 아픔/안개꽃 멍에(구자명 씨를 상징), 죽음의 잠(구자명 씨의 고달픈 인생을 상징), 거부의 화살(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구자명 씨의 희생을 바라는 주체와 관련됨)

KEYWORD

맞벌이 부부, 고단한 하루, 여자의 삶과 희생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5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10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15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20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 시 구조 ★

부분	내용 요약
1행~10행	화자는 고단한 삶으로 인해 출근 버스에서 즐기 시작한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11행~16행	화자는 구자명 씨가 조는 이유를 간밤에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희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17행~24행	화자는 가족들의 안식이 여성의 희생을 기반으로 지켜지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작품의 특징 ★

- ① 현재형 시제가 나타나 있다. (㉔ 시작한다, 존다)
- ②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 (㉔ 부처님처럼, 팬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
- ③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진달래꽃과 밤꽃 vs. (줄고 있는) 구자명 씨)
- ④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11행~16행)
- 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담겨 있다.
- ⑥ 시구를 반복하고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며 인물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내용 이해하기 ★

[]: 특정 어미의 반복(현재형 시제)

「우리 동네 구자명 씨」에서 해석해야 할 내용은 '화자'가 아닌 '구자명 씨'가 처한 고단한 삶과 그의 아픔이다.

- 1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구자명 씨가 겪는 힘든 현실 (1) (맞벌이) 관찰의 대상(직장일과 가사를 함께하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여성)
- 2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구자명 씨가 겪는 힘든 현실 (2) (7개월 아기 엄마)
- 3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 4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기 시작한다**
직장일과 가사를 함께하느라 피곤한 구자명 씨의 모습을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표현.(여성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 5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① 구자명 씨가 겪는 힘든 현실 (3) (출근길)
②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구자명 씨의 삶에 대한 현실감을 부여함.
- 6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구자명 씨의 고단한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줌.
- 7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 8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① 계절을 느낄 틈이 없는 상황을 제시.
② 구자명 씨의 힘겨운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9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① 진달래꽃: 4월에 피(봄)
② 밤꽃: 5월에서 6월 사이(봄 → 여름)
③ 구자명 씨의 모습과 배경이 서로 대비되어 그녀의 힘든 삶을 강조함.
(진달래꽃과 밤꽃 vs. (즐거 있는) 구자명 씨)
- 10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 구자명 씨**
① '부처님'에서 성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구자명 씨에 대한 화자의 인식)
② 구자명 씨를 의미 (1) (부처님)
③ 직유법.

아름다운 바깥 풍경과 직장일과 가사를 함께 하느라 고단한 구자명 씨의 모습이 대비.

〈1행~10행〉은 대부분 그가 얼마나 힘든지에 주목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다 '7개월 된 아기 엄마'이며 심지어 '출근길'도 멀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구자명 씨는 차창 밖 경적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이며, 창밖에 계절이 바뀌어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이런 모습에서 구자명 씨의 고달픈 삶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닌 인자한 성인인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 11 **그래 저 십 분은**
구자명 씨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시간과 관련이 있음.
- 12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구자명 씨가 피곤한 이유 ①(엄마로서의 모습)

- 13 **또 저 십 분은**
- 14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구자명 씨가 피곤한 이유 ②(머느리로서의 모습)
- 15 **그래그래 저 십 분은**
- 16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구자명 씨가 피곤한 이유 ③(아내로서의 모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가족(아기, 시어머니,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삶을 '구자명 씨'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11행~16행〉은 그녀가 출근길에 왜 즐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간밤에 아기를 돌보느라, 간밤에 시어머니 약시중을 드느라, 새벽녘에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느라, 제때 잠을 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출근길에 경적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조는 것이다.

- 17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구자명 씨의 고달픈 삶.**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고단하다: '1. [...이] 몸이 지쳐서 느르하다.
'2.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
'3. [...이][...기가] 처지가 좋지 못해 몹시 힘들다.
- 18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① '아픔'에서 구자명 씨의 괴로움을 확인.
② '팬지의 꽃말': 사색, 나를 생각해 주세요.
③ 구자명 씨를 의미 (2) (팬지꽃)
- 19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① 멍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구자명 씨를 의미 (2) (안개꽃)
③ 안개꽃은 다른 꽃들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함.
- 20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
- 21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구자명 씨'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여자'라는 여성 전체 범주로 범주 확대.(시상의 확대)
- 22 **아무도 모르게**

- 23 **죽음의 잠을 향하여**
'구자명 씨'의 잠을 상징적으로 표현(중의적)
① 피곤에 지쳐 죽은 듯이 든 잠
② 죽음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잠
- 24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① (가족들을 주제로 둘 때) 구자명 씨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
② (구자명을 주제로 둘 때) 식구의 안식을 위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③ (구자명을 주제로 둘 때) 구자명이 졸음을 참아내며 버티는 것으로 해석 가능.

〈17행~24행〉은 다양한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구자명 씨'의 힘든 삶을 표현한다. 특히 화자는 그녀의 삶을 '고단한'이란 수식어로 정리한다. 이 '고단한'이란 말에서 구자명 씨에게 심이란 과연 있느냐와 같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문은 일단 뒤로 하고, 화자는 '팬지꽃 아픔'과 '안개꽃 멍에' 등으로 구자명 씨를 상징하였는데, '꽃'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여자란 점을 의식하여 고려한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죽음의 잠'과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죽음의 잠’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데, 포 인트를 ‘죽음’에 두느냐, ‘잠’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로 해석하면 죽음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로 두면, 피곤에 지쳐 죽은 듯이 든 잠을 의미한다. 둘 다 구자명 씨의 입장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같지만, 그래도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식구의 안식이 ~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로 해석할 때와 ‘구자명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로 해석할 때 차이가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로 해석을 하면,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강요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로 해석할 경우, 식구의 안식을 위해 졸음을 참는 행동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두 여성의 희생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주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문제의 의도를 잘 읽기를 바란다.

이처럼 작가는 구자명 씨의 삶을 통해 기혼인 여자의 삶에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학생들도 ‘구자명 씨’의 고달픈 삶을 중심으로 그녀의 아픔과 희생을 읽어내도록 하자.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수능특강 12p 관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맛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달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특정 시어를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고단한 일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다음은 (가)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우리 동네 구자명 씨」의 부제는 '여성사 연구 5'로, 이 시는 1987년에 출간된 고정희의 시집 『지리산의 봄』의 4부 '여성사 연구'에 수록된 작품이다. 시의 화자는 '구자명'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 여성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고정희가 시인으로서 '여성사 연구' 연작을 발표한 맥락을 탐구해 보자.

일상적 소재	시적 상황	정리
아침 햇살	버스에 오른 인물이 즐기 시작한다.	㉠
경적 소리	인물이 계속 꾸벅꾸벅 준다.	㉡
차창	사계절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
안개꽃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
부엌문	여자가 식구의 안식을 받치고 있다.	㉤

- ① ㉠: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시간임에도 즐기 시작하는 인물의 모습에서, 직장생활과 주부생활을 병행하는 '맛벌이 부부' 여성의 고달픔을 느낄 수 있다.
- ② ㉡: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즐고 있는 인물의 모습에서, 밤새 아기를 돌보고 출근하는 고됨으로 인해 여성의 청각이 서서히 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차창' 밖으로 '진달래'와 '밤꽃'이 피었다 떨어지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에서, 집안일에 시달린 여성의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
- ④ ㉣: 주로 배경으로 인식되는 '안개꽃'을 '명에'라는 시어와 합친 것에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 ⑤ ㉤: '부엌문'이 있는 곳마다 여자의 희생으로 '한 식구의 안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이런 삶의 형태가 흔히 발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수록 012P
01. ③ 02. ②

1.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③ 팬지꽃, 안개꽃, 멩에 등의 사물을 활용하여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고단한 일상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시적 대상인 '구자명 씨'의 현재 상황을 꽃을 통해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이는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대상의 상황일 뿐이다.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은 그만큼 피곤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청각이 퇴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침 햇살'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루가 막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신 졸기 시작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느껴진다. ③ '차창' 밖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구자명 씨'는 피곤한 상태이다. ④ '안개꽃'은 주로 배경을 담당하는 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구속 혹은 억압을 의미하는 '멩에'와 합쳐 쓰임으로써, 여성이 겪는 억압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배경처럼 처리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⑤ '부엌문'은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있는 곳마다 여성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같은 삶의 모습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될 정도로 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 작품 핵심 ★

「해당화」라는 소재를 통해 떠난 입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그려낸 작품.(결국 입이 오지 않아 화자의 슬픔이 부각됨.)

핵심 속

- ① 주제: 오지 않는 입을 향한 화자의 슬픔과 입에 대한 그리움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해당화가 피기 전 돌아온다는 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③ 작품의 특징:
 - ① 대비되는 대상이 나타나 있다. (화자('나') vs. 철모르는 아이들)
- ④ 중요 소재: (화자('나') vs. 철모르는 아이들, 아이들/봄바람(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소재))

KEYWORD

해당화, 봄, 기다림, 두려움, 입, 슬픔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들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 한용운, 「해당화」 -





★ 시 구조 ★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해당화 피기 전에 온다던 임을 기다렸지만 봄이 와도 임이 돌아오지 않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2연	화자는 봄이 와서 이미 피어버린 해당화 소식을 못 들은 체하였지만 임이 오지 않은 현실을 끝내 받아들이며 슬퍼하고 있다.

★ 작품의 특징 ★

- ① 대비되는 대상이 나타나 있다.(화자(나) vs. 철모르는 아이들)
- ② 봄과 관련된 소재가 나타나 있다.(예) 해당화, 봄바람)
- ③ 전체적으로 경어체를 활용하였다.(예) 하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물었습니다 등)

[]: 특정 어미의 반복(경어체)

「해당화」 작품은 전체적으로 '임을 향한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해당화'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어조부터 확인하자. 한용운 작품은 대부분 경어체로 진행되는 데 이는 읽는 사람에게 존중 받는 느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임을 향한 화자의 경건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어조는 한용운이라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 현실 및 작가의 성향과 다시 연결되어 '당신'을 '조국' 또는 '부처'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조국과 부처는 외재적 관점에 의한 해석이므로 작품 자체만 보았을 때 '당신'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정도로만 해석하도록 하자.

- ① 5~7월 사이에 펴(봄 → 여름)
- ② '해당화'는 '당신'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을 환기하는 소재임.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 ① 임, 조국, 부처님 등 다양하게 해석 가능. 경어체 사용.
- ② 청자 제시.

뜻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임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보여줌.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임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음.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임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낌.

〈1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당신'을 연결하여 화자의 태도를 그렸다는 점이다. 임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화의 개화는 곧 임의 귀환과 연결되기에 초초함에서부터 두려움에까지 이르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유도한다. 봄이 오기 전에는 아직 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화가 피는 봄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막상 봄이 되고 나니 임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약속의 매개물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

- ①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음.
- ② 봄이 온 것에 대한 기쁨(화자와 대비)

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화자는 봄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함.
(임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외면)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 ① 임이 오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순간임.
- ②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봄바람에 원망의 감정이 투영됨.
- ③ 경대: 거울을 버티어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따위를 넣는 사람을 갖추어 만든 가구. =경가, 장경, 장련.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 ① 시름없다: '1, 근심과 격정으로 맥이 없다. 화자의 질문.
- '2, 아무 생각이 없다.
- ② 화자의 허망함이 담겨 있음.

뜻있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야속함, 서글픔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 ① 임이 오지 않아 흘린, 화자의 눈물에 반사되어 번져보이는 꽃의 모습.
- ② 화자의 슬픔을 확인.

〈2연〉에는 임이 오지 않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에 따른 화자의 슬픔이 드러난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아이들의 상황'이 대비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화자의 슬픔은 더욱 부각된다. 아이들은 화자와 달리 봄이 온 것을 반기며 뒷동산에 해당화가 핀 사실을 알린다. 화자는 봄이 온 소식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며 임이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지만, 봄바람이 전해 준 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는 당신은 오지 않는다. 화자는 임이 부재한 봄을 맞이하며 슬픔에 가득 차 눈물만 흘린다. 꽃이 돌도 되고 셋도 된다는 말은 눈물에 반사되어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을 뜻한다.

임과의 이별이 지속되는 현실, 그로 인한 화자의 슬픔은 어느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와 정서 위주로 잘 정리해 두자.

- 한용운, 「해당화」 -



03. 활용은 「데이터」로
「화음채널」 공유함



한용운, 「해당화」 - 수능특강 78p 관련

김용택, 「들국」 - 수능특강 80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들고도 못 들은 채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붙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 한용운, 「해당화」 -

* 경대 : 거울을 달아 세운 화장대.

(나)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뭘한다고

뭘한다고.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뭘한다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붙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뭘 헛짓이라고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라고

뭘 소용이라고.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뭘한다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 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뭘한다고, 뭘 소용이라고.

- 김용택, 「들국」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의인을 통해, (나)는 직유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가)는 반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전달하고 있고, (나)는 방언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대상에게 말을 전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경어체를 통해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적 상황의 변화가 화자의 애정이 상실되는 계기가 됨을 보여주는 계절이다.
- ② ㉡은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계절이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와 '당신'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계절이다.
- ④ ㉠과 ㉡은 모두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은 작품 내에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대리물로, 화자의 심정을 자극하거나 심화시키는 매개적 사물,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감정 이입 등으로 사용된다.

- ① (가)의 '경대 위에' 놓인 '꽃'은 화자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봄바람'은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화자를 찾아온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정서가 담겨 있겠군.
- ③ (나)의 '단풍'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 상황에 있는 자연물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자극하는 매개적 자연물로 활용되고 있군.
- ④ (나)의 '마른 지푸라기'는 화자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대상으로,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메마르고 암담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의 '해당화'는 '당신'이 영영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로 (나)의 '들국'은 부재한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시어로 볼 수 있겠군.



정답과 해설



한운운, 「해당화」	수록 078P
김용택, 「들국」	수록 080P
01. ③ 02. ⑤ 03. ②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③ (나)는 1~2행에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 뭐한다요.'와 마지막 행에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 뭐한다요, 흰 소용이다요.'에서 '뭐한다요', '소용이다요'와 같은 방언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 화자의 비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너는 언제 피었니', '꽃은 말도 없이'에서 꽃을 의인화하여 꽃은 피었지만 '당신'이 오지 않는 시적 상황을, (나)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처럼 직유법을 사용하여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암담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봄바람', (나)는 '단풍', '서리'와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1연에서 화자가 꽃에게 '너는 언제 피었니'라고 말을 건네면서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원망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당신'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⑤ (가)는 '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나)는 '뭐한다요 / 뭐한다요.'라는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 오지 않는 임('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한다.

⑤ (가)에서도 '봄'은 임의 부재 상황을 환기하게 되는 상황적 배경이 되므로 야속해하고, 슬퍼하는 즉,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연결된다. 또한 (나)에는 오지 않는 줄 알면서도 가을에 피는 '하얀 들국'에 빗대어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 자신을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로 표현하여 자조적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화자를 그리워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 '봄'은 '당신'에 대한 기다림과 애정을 드러내는 시간일 뿐, 애정이 상실된 시간은 아니다. ② (나)의 ㉡ '가을'에는 '단풍', '물빛' 등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를 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당신'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③ (가)의 ㉢ '봄'은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와 '당신'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계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 '가을'에는 화자가 오지 않는 '당신'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화자와 '당신'이 서로 만나자고 약속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 '가을'은 '하얀 역새꽃', '허연 서리', '하얀 들국' 등 색채를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가)에는 색채어가 없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가)에서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리라던 임은 봄이 오고, 해당화가 핀 뒤에도 오지 않고 있다. 화자는 해당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봄바람에 경대 위에 놓인 해당화를 보고 더 이상 상황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로 볼 때 봄바람이 야속한 것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야속함 때문이다. 따라서 (가)에서 '봄바람'을 '야속하다고 한 것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의 심정을 '봄바람'에 감정 이입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봄바람'은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감정 이입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화자

를 찾아온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봄바람에 날리어 경대 위에 놓인 꽃(해당화)에게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리라던 임이 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이므로 경대 위에 놓인 꽃(해당화)은 '당신'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온 산을 물들인 고운 단풍의 모습에 임과 함께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볼 때 (나)의 '단풍'은 임이 부재한 화자의 쓸쓸한 내면과 대조되는 자연물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자극하는 매개적 자연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내면 상태(마음)를 '마른 지푸라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임의 부재로 인해 절망스러워하는 화자의 메마르고 암담한 심정을 '마른 지푸라기'라는 대상을 끌어들이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면서 해당화가 피는 봄이 일찍 와버린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약속한 '당신'이 봄이 오고 해당화가 핀 뒤에도 임(당신)이 오지 않자, 임이 영영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들국'은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 뭐한다요, 흰 소용이다요.'를 통해 부재한 임(당신)을 기다리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해당화'는 '당신'이 영영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존재이며, (나)의 '들국'은 부재한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이다.



★ 작품 핵심 ★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만 이미 죽어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비유적으로 풀어낸 작품.

핵심곡

- ① 주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한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나’)는 사랑하는 임이 죽어 슬퍼하고 있다.(‘한’과 연결)
- ③ 작품의 특징:
 - ①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예) 감나무쯤 되랴
 - ② 도치법이 나타나 있다.(1연)
 - ③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나타나 있다. (예) 서러운 노을빛
- ④ 중요 소재: 사랑의 열매/느껴온 열매/그 열매 빛깔(감을 의미, 화자의 사랑을 의미), 저승(임이 죽었음을 암시), 감나무(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

KEYWORD

감나무, 감, 저승, 사랑, 설움, 안타까움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恨)」 -





★ 시 구조 ★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노을빛으로 익은 감을 보며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연	화자는 자신이 감나무 가지로 번어서 죽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3연	화자는 임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거나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러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 작품의 특징 ★

- ①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예 감나무쯤 되랴)
- ② 영탄법이 나타나 있다.(예 나무는!, 될는지 몰라!, 알아낼는지 몰라!, 그것을 몰라!)
- ③ 반복법이 나타나 있다.(예 ~지 몰라!, 그것을 몰라!)
- ④ 도치법이 나타나 있다.(1연)
- ⑤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예 감나무, 열매)
- ⑥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나타나 있다.(예 서러운 노을빛)
- ⑦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예 서러운 노을빛)

★ 내용 이해하기 ★

- : 화자의 사랑, 감나무, 감을 의미.
- []: 특정 시어의 반복.

「한(恨)」은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주제를 짐작할 수 있다. 한이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을 의미한다.

감나무쯤 되랴,

- ①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1)
- ②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의미.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 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서러움을 드러낸 표현.
- ② 감정 이입.
- ③ 색채 이미지(노을빛)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2)

→ 도치법을 통해 시적 대상인 '감나무'를 보여줌

〈1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인 자연물인 감나무와 사랑의 열매(감)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감'과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연결하여 해석하며, '감나무'가 어떠한 상징적 기능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함.
- ② '감나무'가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이것이 제대로 받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3) (=감나무)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임 화자는 살아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움.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① 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
- ② 입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음.

〈2연〉에서는 감나무를 활용하였다는 것과 저승이란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화자는 감나무의 가지가 제대로 받을 곳은 저승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저승'을 '임'과 관련지어 보면 이미 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감나무' 가지를 언급한 것에서 '감나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은 임이라 할지라도 화자는 임의 곁에 가고 싶어 겨우 등 뒤로 번어가 머리 위에 마지막으로 가지를 휘두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 ① 느낀다: 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다.
- ②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4)

[]: 화자는 그 사람이 심고 싶었던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음.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 ①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 (5)
- ② 서러운 노을빛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 ①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 그리움, 슬픔, 서러움 등이 담겨 있음.
- ② 대상으로 인해 갖게 된 한스러움이 화자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하게 해 줌.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표현하지 못해 슬퍼하며 회의적인 감정을 갖게 됨.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쩔던지

임이 느꼈을 정서.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시구의 반복 효과
- ① 의미를 강조함.
- ② 리듬감을 형성함

[]: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느꼈을 서러움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음.

〈3연〉은 특정 시구들(~지 몰라, 그것을 몰라)이 반복되는데, 이는 〈2연〉에서 임이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사랑하는 임이 죽었기 때문에, 임의 생각을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았을 때 느꼈을 감정을 확인할 길도 없다. 이처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에서 화자의 한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배가 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사랑하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해당 작품은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점과 특정 어휘를 반복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도 이 점을 고려하여 '감나무, 감, 몰라' 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자.

- 박재삼, 「한(恨)」 -





박재삼, 「한」 - 수능특강 78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학년도 10월 학력평가]

(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그만 발자욱을 ㉢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 눈이 나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 ┌ 감나무쯤 되랴,
- [A]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B] └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가서
┌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 그러나 그 사람이
- [C] └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 [D] └ 전생의 내 쉼(전) 설움이요 쉼(전) 소망인 것을
┌ 알아대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 [E] └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 -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 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들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뜰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지만
 동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기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진청, 「하류」 -

1.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고조된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⑤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눈(雪)'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지속되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순이와의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②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라고 하였으므로, ㉡은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내리는 눈이겠네요. 이것은 '벽과 천정'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이별로 인한 공허함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 ③ 순이의 '쪼그만 발자욱'을 '자꾸 내려' 덮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은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 ④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으로 보아, ㉣은 순이가 있는 곳으로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⑤ '일 년 열두 달 하냥'으로 보아, ㉤은 순이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심정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시인이 (나)를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된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벗어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의 이워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4.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다)는 시각을 청각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박재삼, 「한」

수록 078P

01. ② 02. ④ 03. ④ 04. ⑤

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가)는 눈 오는 날 떠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저승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는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린 '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다) 모두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도 ©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 의도]** 글쓴이의 창작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③ C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달리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E에서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나)에서는 '감나무쯤 되랴'에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에서는 '~었네'라는 특정 어미의 반복이 나타나 있을 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에서 의인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에서 시각을 청각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1연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몰라!', (다)에서는 '-었네.'가 포함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나무쥬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받을 때는 저승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뺨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런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 -

(나)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벼를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내린
한 잎의 꽃잎 같고
혁명(革命) 같고
먼저 떨어져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내린 작은 꽃잎 같고

- 김수영, 「꽃잎 1」 -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활유법을 통해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 ④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화자가 강조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은 삶에 대한 순응적 자세를, ㉡은 삶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은 대상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은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상황을 드러낸다.
- ④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⑤ ㉠은 현재 상황으로 인한 화자의 감정과, ㉡은 시적 상황에 대한 관념적 태도와 연결된다.

7.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의 상황 인식은 대체로 대상 자체의 속성이나 특성을 관찰하거나 대상과의 직접적 접촉에 따른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 인식 과정을 통해 심화된 정서를 표출하거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 ① (가)에서는 '감나무'라는 대상을 통해, (나)에서는 '꽃잎'과 '바람'이라는 대상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서러운'과 '설움'의 시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에서는 '꽃잎'이 '혁명' 같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꽃잎'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는 사랑이 '열매'처럼 익어간다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마당'에 대한 관찰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있군.
- ④ (가)에서는 '몰라'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구심이 해소되었음을, (나)에서는 '모르고'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는 '내 마음'이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뺨이 가는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바람'이 '언덕'과 '거룩한 산'에 닿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려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박재삼, 「한」

수특 078P

05. ② 06. ⑤ 07. ④

5.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감나무'를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대상으로 보고 '뺨어간 다'와 같이 묘사한 것에서, (나) 역시 '바람'이 '고개'를 '일어선다'나 '깨 어난다'와 같이 묘사한 것에서,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대화가 아닌 화자의 독백적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③ (가)와 (나)에는 각각 전생, 나중에 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시어가 시적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에서 도치의 방식으로 문장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변형된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될는지 몰라! / 알아낼는지 몰라! / 그것을 몰라!'와 같은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나)에는 '~모르고', '~갈고'의 문장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문장 형태의 반복이 화자의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6. [출제 의도] 작품에 제시된 부분의 내용 및 태도를 파악한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자신의 사랑이 '저승'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서러워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에 제시된 '꽃잎'을 '혁명'이라는 관념적 태도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화자의 한(혹은 사랑)을 형상화한 '나무'가 '뺨어가는' 역동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에서 화자가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을 통해 화자가 삶에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고, ㉡을 통해 화자가 삶에 반성적 자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은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상황이 아니다. ㉡은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상황이 아니다. ④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아니라 대상과 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

7.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④ <보기>에서 시적 상황의 인식은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가)에서는 '몰라'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의구심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서 '모르고'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감나무'에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정서를 제시하고 있고, (나)에서는 '꽃잎'과 '바람'이라는 대상을 통해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서러운', '설움'과 같은 시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꽃잎'을 '혁명' 같다고 비유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열매'에 비유하고 이러한 열매가 익어간다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마당'에서 바람과 꽃잎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내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뺨어가는 접촉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려 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자가 '바람'이 '언덕'과 '거룩한 산'에 닿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상과 교감하려 하고 있다.





★ 작품 핵심 ★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슬픔, 비애, 괴로움 등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그려진 작품.

핵심 속

- ① 주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비애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정든 고향을 두고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한다.
- ③ 작품의 특징:
 - ① 의도적으로 한 칸 씩 띄어 씌우며 시선 집중과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예) 나 두 야 가련다
 - ③ 수미상관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1연, 4연)
 - ③ '마련이나 있을 거냐'에서 화자의 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중요 소재: 간다/가련다(화자의 의지), 아늑한 이 항구/사랑하던 사람들(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바람(방해물), 앞 대일 언덕(미래), 마련이나 있을 거냐(화자의 불안)

KEYWORD

고향, 젊음, 눈물, 미련, 미래, 불안감, 슬픔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땃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 시 구조 ★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고향을 떠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의지)
2연	화자는 아늑한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내비치고 있다.(그리움, 비애, 안타까움)
3연	화자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시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불안)
4연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의지)

★ 작품의 특징 ★

- ① 의도적으로 한 칸 씩 띄어 씌으로써 시선 집중과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예 나 두 야 가련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1연, 4연)
- ③ 반복법이 나타나 있다.(1연, 4연)
- ④ 설의법이 나타나 있다.(예 보낼 거냐, 버릴 거냐, 다를 거냐, 있을 거냐)
- ⑤ 영탄법이 나타나 있다.(예 아—)
- ⑥ 비유법이 나타나 있다.(예 안개같이)
- ⑦ '쫓겨 가는 마음'에서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⑧ '마련이나 있을 거냐'에서 화자의 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 작품 TMI ★

■ '안'과 '밖'의 공간의 대립

안	↔	밖
화자의 삶의 터전이자, 정든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		장차 떠나서 향하게 될 낯선 곳이자, 의지할 곳이 없는 외부의 공간
발에 익은 뒷부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앞 대일 언덕
아늑한 이 항구		

[]: 특정 어미의 반복(설의법)

「떠나가는 배」는 '시대 현실'과 '화자의 태도'를 같이 읽어야 하는 작품이다. 보통은 부정적인 현실과 밝은 미래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소재의 대비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해당 작품은 화자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안한 미래이지만 가야하는 현실을 읽어 그의 슬픔과 의지를 같이 읽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해당 작품을 보면 <1연>과 <4연>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안정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화자의 의지 또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두 야 간다

- ① 의도적인 한 칸 띄어쓰기로 화자의 힘든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방설임)
- ② 의도적인 한 칸 띄어쓰기로 시선 집중 효과를 가져옴.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① 설의법
- ② 눈물만 흘리며 현재 상황에 안주할 수 없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음.

나 두 야 가련다

화자도 떠나겠다는 의지를 의미.

수미상관(<1연>과 <4연>)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

<1연>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이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낸다.'는 말에서 화자의 회한(=뒤우치고 한탄함)을 읽을 수 있다. 즉, 견디기 힘든 현실을 눈물로 보내기에는 후회가 생겨 떠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또한 <2연>과 연결해 보면, <1연>은 현실의 변화를 위해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화자의 비애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① 설의법.
- ② 손쉽게 버리기 어렵다는 의미임.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 ① 화자가 떠나야 하는 곳(평화)
- ② 고향.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① 직유법
- ② 고향을 떠나는 화자의 슬픔을 '안개'에 빗대어 표현.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뭇부리 모양

화자의 발에 익은 고향의 모습.

영탄법(화자의 정서 고조)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

<2연>에는 화자가 있던 곳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곳은 아늑한 항구이자 손쉽게 버리기 어려운 곳으로 화자의 '고향'임을 짐작케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기가 힘들다. 즉, 현실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고향을 떠나더라도 고향을 잊을 수는 없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 ① 설의법.
- ② 쫓겨 가는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

짓밟게 해방을 놓는다.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 ①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의미.
- ② '바람'=방해물

화자의 미래와 관련이 있음.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 ① 설의법.
- ②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란 의미.(불안)

<3연>은 화자의 정서를 위주로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연>의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고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갖기까지 화자가 꽤 괴로워했음을 <3연>에서 읽어야 한다. <2연>에서 고향은 화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 공간이다. 고향을 잊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마치 쫓겨 가는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다시 <3연>에서 강조한다. 특히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에서 절정을 이룬다. '바람'이 고향을 마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점에서, 그리운 장소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3연>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앞 대일 언덕'은 이 배가 멈춰야 할 목적지를 의미하는데, '마련이나 있을 거냐'라는 말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화자의 불안함을 읽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화자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눈물로만 세월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다.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수미상관(<1연>과 <4연>)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

<4연>은 <1연>의 반복이며 고향을 떠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부분이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사랑하는 사람을 등지고 떠나야만 하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05. 박용철 「떠나가는 배」



박용철, 「떠나가는 배」 - 수능특강 80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 채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순진하고 가냘픈 존재이다. 나비는 처음에 바다가 청무우밭인 줄 알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푸르고 넓은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청무우밭과 이미지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가 보니 바다는 나비가 생각했던 청무우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깊디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바다는 나비가 처음 접하는 새로운 세계이기에 낯설다. 그렇기에 바다는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경의 공간인 동시에,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공포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나비는 놀라 허우적대다 지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비와 바다의 관계는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바다'를 서구 문명의 현실로, '나비'를 이를 접하는 청년 지식인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볼 때, 「바다와 나비」는 1930년대의 청년 지식인들이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의 열악함과 한계로 인해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는 1920년대 당시 문단의 성격이 반영되어 절망과 허무 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것은 1925년으로, 이 시기는 시인들이 식민지 현실에서 3·1운동의 실패를 겪으며 퇴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던 시기였다. 「바다와 나비」의 나비와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배」의 화자 역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화자가 떠나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떠나가지 않으면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화자는 막연히 떠나고 싶다는 소망과 현실적으로 시적 자아의 발을 묶고 있는 미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게다가 떠나가서 닿는 곳도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없는 암담한 곳이다. 그렇기에 화자에게는 바람에 모양이 변하는 구름마저 정겹고 슬프게 보이는 것이다. 희망도 없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화자의 비장한 각오와 심정은 '나 두 야 간다'라고 띄어 쓰며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모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다)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1.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 ① (나)는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특정 시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나)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④ (다)는 동일한 어구 및 의도적인 띄어쓰기의 반복을 통해 형태상의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⑤ (다)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과 비장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기림은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로 감상적인 시를 배격하면서 ㉠ 문명 비판적이고 주지적인 시의 창작을 주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다와 나비」가 지닌 ㉡ 회화적 특성은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와 관련하여, '어린 날개'를 지닌 '공주'는 전근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다.
- ② ㉠와 관련하여, '나비'에게 아무도 수심을 일러 주지 않은 것은 삭막하고 단절적인 현실이 있음을 반증하기 위함이다.
- ③ ㉠와 관련하여, '바다'의 수심을 알지 못했던 '나비'가 지치고 서글퍼하는 것은 거대한 문명의 냉혹함에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 ④ ㉡와 관련하여, '꽃'이 피지 않은 '바다'는 파란색의 이미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대상이다.
- ⑤ ㉡와 관련하여, '나비'의 흰색과 '바다'의 푸른색이 대비되는 것은 환상적이고 전원적인 느낌을 자아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바다로 향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바다를 건너기 전 원래 있던 곳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드넓은 바다로 연상되는 이상적 공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이 당도할 곳이 어떤 성질을 지닌 곳인지 짐작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사랑하던 고향으로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4.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바다'는 당대 청년들에게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서구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청무우밭'은 당대 청년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겠군.
- ③ (다)의 '눈물'은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군.
- ④ (다)의 '나 두 야 간다'의 반복은 당대의 허무 의식과 퇴폐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다)의 '아늑한 이 항구'는 화자가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고향을 상징하는 공간이군.



박용철, 「떠나가는 배」

수특 080P

01. ②, ③ 02. ③ 03. ④ 04. ③

1.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② (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시간적 배경은 '삼월'인데, 이것은 아직 꽃이 피기 시작할 시기(대략 5월)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암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나)는 시적 대상인 '나비'를 관찰하며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에서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 새파란 초생달이 상징하는 현실의 가혹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④ (다)는 1연과 4연에서 동일한 어구 및 의도적인 띄어쓰기의 반복을 통해 형태상 안정감을 취하고 있다. ⑤ (다)는 시적 화자인 '나'의 독백적 어조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깝고도 비장한 심경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

2.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나비'는 낭만적인 동경과 꿈을 지닌 존재를, '바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냉혹함을 상징한다. 흰 색과 푸른 색이라는 색채 대비를 통해 더욱 그 대립이 두드러지며 이는 문명 비판적 의식을 부각시켜 준다.

[오답 풀이] ① '공주'는 다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어들었다가 실의와 좌절에 빠진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근대적인 존재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수심을 알지 못하고 '바다'로 향하는 '나비'는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순진하고 가냘픈 존재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문명 비판적 성격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바다'에 '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단색의 이미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바다 즉 근대 문명의 무생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⑤ '나비'의 흰색과 '바다'의 푸른색이 대비되어 회화적 특성을 보여 주나, 전원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3.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④ ㉠(나비)은 자신이 떠나는 곳이 청무우밭이 아니라 바다인 것을 몰랐고, 그 바다가 어떤 성질을 가진 곳인지도 몰랐다. 반면 ㉡(나)은 자신이 떠나서 도달할 곳이 과연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냐'라고 의심하며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곳이라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비'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바다로 향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나'는 '쫓겨가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비'는 바다를 건너기 전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그곳에 애착을 품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바다를 건너기 전 원래 있었던 고향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 ③ '나'는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꿈을 품고 떠나려고 하고 있다. '나비' 또한 드넓은 바다로 연상되는 곳이 곧 청무우밭이라면 그곳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비'는 다만 바다에서 지쳐 되돌아왔을 뿐, 그곳이 사랑하는 고향이라 돌아오기를 다짐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도 역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다.

4.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다)의 '눈물'은 떠나지 않으면 화자가 겪게 될 절망을 보여 주는 시어일 뿐,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바다'는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서구 문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② (나)의 '청무우밭'은 당대 지식인들이 유학을 통해 접하고 열망했던 새로운 세계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의 '나 두 야 간다'는 암울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인의 의지를 보여 주는 구절이다. ⑤ (다)의 '항구'는 화자가 사랑하던 고향을 상징하는 공간이기에 아득하게 느껴지고 있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 수능특강 80p 관련

김영랑, 「집」 - 수능특강 296p 관련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데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뫂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데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 뫂부리 : '산봉우리'의 옛말.

* 희살짓다 : 짓궂게 헐방놓다.

(나)

내 집 아니라

너 집이라

날르다 열린 돌아오라

처마 난간이

너들 가여운 속삭임을 ㉢ 지음(知音)터라

내 집 아니라

너 집이라

아빠* 간 뒤 머언 날

㉣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문틈 사이 너는 몇 대째 설위 우느뇨

내 집 아니라

너 집이라

하늘 날던 은행잎이

좁은 마루 구석에 품인 듯 안겨 든다

자고로 맑은 바람이 거기 살았나라

오! 내 집이라

열 해요 스무 해를

㉤ 앉았다 누웠달 뿐

문밖에 바쁜 손[客]이

길 잘못 들어 날 찾아오고

손때 살내음도 저궂을 난간이

흔히 나를 안고 한가하다

한두 쪽 흰 구름도 사라지는데

한 두엿 저질러 눈 부끄러운 것

파아란 하늘처럼 아슴푸레하다

- 김영랑, 「집」 -

* 아빠 : '아버지'의 사투리.

* 아슴푸레하다 : 아스라하다. 이슬이슬하게 높거나 까마득하게 멀다.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각 연의 행의 수를 통일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문형 진술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항구를 떠나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② ㉡은 짧은 시절을 눈물로만 보내왔던 '나'의 애환을 나타낸다.
- ③ ㉢은 처마 난간에 터를 잡은 새들의 속삭임을 '나'가 알아들었음을 나타낸다.
- ④ ㉣은 먼 훗날에 '아들 손자'의 잠을 깨우고 싶은 '나'의 바람을 나타낸다.
- ⑤ ㉤은 '나'의 집에 잠깐씩 머물다가 간 '바쁜 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나)는 의도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망설임, 의지 등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린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오랫동안 살아 온 집을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집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상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는 '나 두 야 간다'처럼 의도적인 띄어쓰기 조절을 통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는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아득한 이 향군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를 통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하늘 날던 은행잎이 좁은 마루 구석에 품인 듯 안겨 든다'를 통해, '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나)는 '한두 쪽 흰 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 두엿 저질러 논 부끄러운 짓'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정답과 해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수록 080P
# 김영랑, 「집」	수록 296P
05. ⑤ 06. ③ 07. ②	

5.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⑤ (나)에서 '~설워 우느뇨'라는 의문형 표현이 있지만, 이는 몇 대째 화자의 집 처마에 터를 잡고 살아 온 제비들의 울음소리에 대한 화자의 반응일 뿐, 의문형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나두야 간다', '나두야 가련다' 등의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고향을 떠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 자신의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다', '-냐' 등의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나)는 '-다', '-라'의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각 연의 행의 수를 모두 동일한 수인 4행으로, (나)는 각 연의 행의 수를 모두 동일한 수인 5행으로 구성하여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④ (가)는 '아, 사랑하던 사람들'에서처럼 '아'라는 감탄사를, (나)는 '오! 내 집이라'에서처럼 '오'라는 감탄사를 활용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6. [출제 의도]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③ ㉠에서 '늑(표준어는 '네')는 '날오다 얼른 돌아오라', '처마 난간', '가여운 속삭임을 지음(知音)터라'라는 구절로 볼 때 제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화자의 집 처마 난간에 터를 잡은 제비들의 가여운 속삭임을 처마 난간이 알아들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무생물인 처마 난간이 제비들의 가여운 속삭임을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지붕의 처마 난간에 터를 잡은 새(제비)들의 속삭임을 집에 있는 화자가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이를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는 1연의 '나 두야 가련다'를 통해 화자의 눈에 어린 눈물로 볼 수 있다. 즉 향구(고향)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아니다. (가)의 화자는 정든 고향의 사람들(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비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주름살'은 문맥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생긴 주름살'이다. 따라서 '주름살'은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낸 화자의 삶의 애환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주름살' 다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내가 사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지붕 처마 난간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제비가 처마 난간에서 지저귀는 것을 알아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를 해석하면 너희 제비들이 이 아버지(화자)가 떠난 먼 훗날에도 이 집에 계속 찾아와 처마 난간에서 지저귀면서 화자의 아들과 손자들의 잠을 깨울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먼 훗날에도 아들 손자의 잠을 깨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의 '앉았다 누웠달 뿐'의 주체는 '문밖'의 '바쁜 손'이 아니라 이 집에서 십 년 이십 년을 앉았다 누웠다 하며 살아온 화자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걸쳐 화자의 집에 잠깐씩 머물다가 간 바쁜 손님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연의 '오! 내 집이라 / 열 해오 스무 해를 / 앉았다 누웠달 뿐 / 문밖에 바쁜 손이 / 길 잘못 들어 날 찾아오고'를 해석

하면 '생각해 보면 이 집이 니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십 년 이십 년을 앉았다 누웠다 하며 살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집에 온 문밖의 바쁜 손님은 다른 집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 나를 찾아왔을 뿐 진정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집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무상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7.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가)의 시적 상황을 살펴보면 화자인 '나'는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낼 수 없기에 정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가)의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에서 '앞 대일 언덕'은 고향을 떠나 화자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는 화자가 고향을 떠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 두야 간다'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호흡을 느리게 표현함으로써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화자의 망설임과 아쉬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긴 해도 어쨌든 가기는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 등의 복잡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아늑한 이 향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는 '이 향구(화자의 고향을 의미함)를 손쉽게 버릴 수 없다는 설의적 표현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련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집을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하늘 날던 은행잎이 좁은 마루 구석에 품인 듯 안겨 든다'의 바로 앞 문장에서도 화자는 '내 집 아니라 니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자가 사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하늘 저편에 '한두 쪽 흰 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행한 '한 두어 저질러 놓 부끄러운 짓'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